한강 빠진 시민 구한 해군 중령에 'LG의인상'

구조 어려운 상황에 150m 헤엄쳐 구해

LG복지재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옥수나들목 인근에서 한강에 뛰어들어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한 김용우(51, **사진**) 해군 중령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김용우 중령은 당시 한강 변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강 한복판에 빠진 시민을 보고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물에 빠진 시민은 강변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 중령은 강가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환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지체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김중령은 시민에게 헤엄쳐 접근한 뒤 구명환을 건넸고 5분여만에 무사히 시민을 구해낸 후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해군 출신입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의인상 전달에 대해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업이라며, 같은 상황이었다면 모든 군인이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한 김 중령의 사명감을 우리 사회가 함께 격려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의인들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 폭염피해 농가 방문

이대훈 NH농협은행장(앞줄 왼쪽 세번째)은 9일 경기도 광명시 안터마을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농민을 위로하고 생수 1만 병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이대훈 행장이 9일 경기도 광명시 안터마을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폭염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생수 1만 병을 전달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폭염 피해를 입은 농업인·중소기업 및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염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롯데홈쇼핑

소외계층 초청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롯데홈쇼핑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외계층 300명을 초청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6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원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에 위치한 위더스웨딩홀에서 진행됐다.

롯데홈쇼핑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은 이른 시각부터 약 3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한 이완신 대표이사가 영등포구 소외계층 지원 기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소외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반찬 나눔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활동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초복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롯데홈쇼핑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 지역 사회공헌활동 '희망수라간'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0명의 지역민들에게 삼계탕이 전달됐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망수라간'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영등포구 위더스웨딩홀에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김민서 기자 min0812@

티브로드

지방선거 당선자 만나 공약이행 점검

abc특집대담 시장보다 시민을 기념해 최대호 안양시장(왼쪽부터),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티브로드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는 지난 6·13 지방 선거 '유권자가 주인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총 443명에 대해 오픈형 토크콘서트, 특집대담, 인터뷰 등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구청장 특집 대담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구청장을 찾아가 대표 공약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방송 권역 내 시장들이 모여 대담을 나누는 이색적인 토크콘서트도 준비됐다. abc방송은 '시장(市長)보다 시민'을 제작,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모여 대담을 나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8월 10일 (음 6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금물. **60년생** 외국여행은 지출이 많아져 후회가 발생한다. **72년생** 밖은 꽃이 피었으나 내 마음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84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소 **4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미리 쇼핑을 하는 것도 한 방법. **61년생** 공들인 탑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법. **73년생** 푸른 바다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85년생** 계획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호랑이 **50년생** 죽은 나무에 미련을 갖지 마라. **62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이다. **74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86년생**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라.

토끼 **51년생** 자식 자랑을 실컷 하게 되는 날. **63년생** 좋은 결과를 보려면 신중해야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75년생** 쉽게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7년생** 새로운 기회가 왔으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용 **52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니 적당히. **76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88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뱀 **53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 **65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은 오늘 마무리. **7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 **89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말 **54년생**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66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다른 이의시기를 받을 수 있다. **78년생** 신장계통의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90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음.

양 **55년생** 만사가 귀찮고 마음이 심드렁한 날. **67년생** 감정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 **79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91년생** 가뭄이 해갈되듯 일이 잘 풀려가니 더 열심히 해보자.

원숭이 **56년생** 가정의 화목이 모든 일의 근본임을 명심. **68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80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조심. **92년생** 오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닭 **57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69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겠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라. **8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93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개 **58년생** 지나간 일들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7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는다. **82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한 날이다. **9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이다.

돼지 **59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겁다. **71년생** 명예도 실속도 챙기는 날. **83년생** 우물 속 개구리처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95년생** 어여쁜 이성의 유혹이 있으니 즐겁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6	5
			3	9	8			
		2				3		
6				8				3
	5		4		1		7	
1				2				4
		6				2		
			2	7	5			
8	2						3	7

		2		1	9		3	4
		3	2	6			9	
	9		6				2	3
2		6				1		5
5	8				2		7	
	2			7	1	3		
7	4		3	5		6		

스도쿠 정답

7	3	4	9	6	1	5	2	8
8	9	6	5	7	2	3	1	4
1	5	2	3	4	8	6	7	9
4	8	5	2	6	9	7	3	1
6	7	9	1	3	4	8	5	2
3	2	1	7	8	5	4	9	6
9	1	3	4	5	6	2	8	7
7	6	8	3	2	9	1	4	5
5	4	9	8	1	3	6	2	3

9	7	5	8	4	3	2	6	1
8	6	2	5	1	9	7	3	4
4	1	3	2	6	7	5	9	8
1	9	7	6	8	5	4	2	3
2	3	6	7	9	4	1	8	5
5	8	4	1	3	2	9	7	6
6	2	8	4	7	1	3	5	9
7	4	9	3	5	8	6	1	2
3	5	1	9	2	6	8	4	7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의 개화기는 7월 초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루에 수백 송이의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옮겨 심거나 가지를 꺾어 접목해도 잘 자라는 끈기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화려하지 않으며 아름답고 끈질긴 우리의 민족성을 상징한 것이다. 꽃이 질 때는 벚꽃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꽃송이 전체가 하나로 말리어져 떨어지므로 협동과 단결을 나타낸다. 꽃잎이 다섯으로 우리 전래의 오행 오복 오곡 등 다섯이란 숫자로 평화와 행복을 사랑함을 뜻한다.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군자의 나라는 사람들의 민족성이 군자답고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는 나라'라고 예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무궁화로 상징하여 '무궁화 피는 화려강산'으로 인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태극기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고 무궁화 꽃은 오행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애국하는 일이 크게 할 것 없이 흰색이건 붉은 색이건 무궁화가 삼천리 곳곳에 피어 있어야 하고 벚꽃 축제가 있는 만큼 무궁화 축제가 더욱 강건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궁화를 천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놓은 일본은 침탈의 역사 앞에 반성의 기미가 없 다. 선진국임을 자처하고 국제화를 외치면서 주변국가에 대한 과거의 반성이 없으니 속 좁은 일본의 파렴치가 치를 떨게 한다. 파렴치한 우경화 군국주의 침략 근성의 일본인이 판을 치지만 그래도 양심 적인 지식인이 있다는 것에 일본을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달리 봐야 할 것 이기도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한국 땅"이라고 교과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역사과목이 대학 입시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청소년의 나라사랑이 고취토록 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